

2010년 봄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31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술람미의 예표  
(2)

성경: 아 6:13, 4:7, 5:10-16, 6:4, 7:7, 11-12, 히 6:19, 13:12-13

I. 솔로몬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는 부활과 영광스럽게 된 안의 교회를 예표한다—왕상 10:1-9, 14-29, 앵 3:21, 5:27.

- A. 아가서 전체는 술람미가 어떻게 솔로몬을 체험하고 누리게 묘사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체험과 누림을 예표한다—2:8-10.
1. 아가서에 있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나와 부활로 들어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11-13 절.
  2.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지금은 부활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롬 8:10-11, 골 1:18, 27.
  3. 우리가 접촉하고 교통하는 그리스도—아가서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3:6, 9-10.
- B. 예표인 술람미의 초점은 부활 안의 교회이다—4:6.
1. 교회의 예표인 술람미는 부활 안에 있는 교회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길에 중심을 두고 있다—1:14, 17.
  2. 부활은 다만 생명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붙잡아 둘 수 없는 생명이다. 부활의 의미는 생명이 모든 속박과 압박과 감금을 돌파하고, 그러한 것들에 붙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행 2:24.
  3. 우리가 부활 안에 산다면 부활 안에 있는 교회—술람미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배필—의 일부로서 사는 것이다—롬 8:11, 고후 1:9.

II. 술람미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감상한다—아 5:10-16.

- A. 아가서 5 장 10 절-16 절은 사랑스런 신랑이신 부활 안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 B. 그녀의 사랑하는 분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서 그녀는 많은 뛰어난 표현과 상세한 표현으로 그분을 칭송한다—10-16 절.
1.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다—10 절.
  2. 그분의 머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복종은 왕성하고 힘 있다—11 절.
  3. 그분의 정서의 표현은 단일하고 순수하며, 그분은 우리에게 친밀하고 애정어린 분이시다—12 절.
  4.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그분은 초월하시고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14-15 절.
  5. 부활 안의 그러한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다만 마음이 불타서 “이분이 내 사랑하는 분이다! 그분은 전체가 사랑스럽다!” (16 절)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III. 술람미는 아름답다—아 1:15, 4:7, 10, 6:4, 10.

- A.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교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4:7.

1. 교회의 아름다움은 신부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엡 5:27.
  2. 술람미의 아름다움은 그녀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통해 표현되는 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직 그녀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3:16-21, 아 6:4, 10.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이 그분의 표현이다—4:7, 10-15.
- B. 술람미의 아름다움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1. 그녀의 마음의 단일함에서 생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인식—1 상.
  2. 하나님께서 먹이시어 생긴 그녀의 복종과 순종—1 하.
  3.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타고난 힘이 아닌 수용력으로 그녀가 신성한 음식을 받아들임—2 절.
  4. 그녀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권위를 가지고 말함—3 상.
  5. 생명이 충만하면서도 감추인 그녀의 표현—3 하.
  6. 복종하는 의지와 방어력이 풍성한 의지를 가짐—4 절.
  7. 두 배로 강화된 그녀의 부드러운 믿음과 사랑—5 절.
  8. 그녀가 하늘에 속한 성소(디르사)와 같이 아름답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움—6:4.
  9. 그녀의 속부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활동적인 능력—7:2-3.
  10. 하나님을 위해 강한 그녀의 사상과 의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왕이신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사로잡는 그녀의 헌신을 위한 복종과 순종—5 절.

#### IV. 술람미는 성숙하다—7 절, 6:13.

- A. 성숙한 키에 있어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같다—7:7.
- B. 그녀의 미덕들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의 표시이다—1-5.
- C.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되어 견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히 5:12-14),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충분히 성장하고(고전 14:20),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되고(2:6-7),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하게 되어(마 5:48), 몸을 알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고, 몸을 관심하고 몸을 존중하는 것이다(엡 4:13-16).
- D.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숙으로, 술람미는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분의 재생산이 된다—아 6:13.

#### V. 술람미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4 상.

- A.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4 상.
  1.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삶으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되어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소와 그 보호가 된다.
  2. 그리스도의 이기는 연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4 상.
- B.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계 2:4, 요 14:20-21, 23, 엡 3:17.
- C.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련되어) 건축되어 성숙에 이르는 것이다—4:12-16.
  1. 몸의 건축은 유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는 데 달려 있다—15 절.
  2. 그리스도의 아내(5:25-32)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이 건축은 궁극적으로 영원 안에서 지성소의 완결이요 하나님과 그분이 구속한 사람들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3, 16, 22.

**VI. 술람미는 군대이다—아 6:4 하, 10.**

- A. 하나님의 건축물은 항상 군대이다. 우리가 주님께 성이 될 때 원수에게는 군대이다—4 하, 10.
  - 1. 원수에게는 술람미가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할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연인은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어여쁘고, 하늘에 속한 성처럼 견고하고, 성소처럼 맑다. 동시에 그녀는 원수와 세상 앞에서 그녀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준다.
- B. 엄위한 군대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두렵게 하는 주님의 이기는 이들을 상징한다—4 하, 10 절.
  - 1. 원수는 하나님의 성으로 건축된 교회를 두려워한다—느 6:15-16, 시 102:12-16.
  - 2. 사탄은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사탄과 사탄의 왕국에 맞서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두려워한다—엡 6:10-20.

**VII. 술람미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동역자이다—아 7:11-12.**

- A.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인간 미덕들로 표현된 신성한 생명의 모든 속성들로 장비되는 데 달려 있다—1 절-9 상.
  - B. 술람미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과 함께 그분의 몸을 위해 일한다—11-12 절.
    - 1. 우리 안에서의 삼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엡 3:16-21, 4:4-6, 12, 16.
    - 2. 몸이 우리의 생활과 일을 지배하는 법이다—1:22-23, 고전 12:27.
- VIII. 오늘 우리는 술람미와 아비가일 둘 다여야 한다. 술람미로서 우리는 영광스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휘장 안에서 누리고, 아비가일로서 우리는 낮아지시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진영 밖에서 따른다—히 6:19, 13:12-13.**